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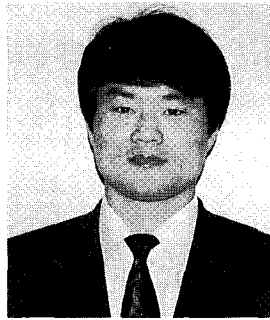
최선의 환경보호는 自然과의 조화

지난 해 북극점 탐험 취재 차 떠난곳에서 석달 간 흔히 에스키모라 불리는 사람들(자신들은 진짜 사람들이란 뜻의 이누이트라고 부른다)의 생활성과 접할수 있었다.

이들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은 사냥이다. 그런데 이들이 사냥하는 모습은 경이스럽기 까지 하다. 에스키모들의 주식 가운데 하나가 해표인데, 해표는 겨울이면 북극해에 얼어 붙은 얼음에 숨구멍을 여러 개 뚫어 놓고 십여 분에 한번 씩 그곳으로 코를 내밀어 숨을 쉬고는 다시 바닷속으로 들어간다.

에스키모들은 바로 이들이 숨을 쉬러 나오는 순간을 노린다.

문제는 해표가 언제 어느 구멍으로 숨을 쉰다는 일정한 규칙이 없는 데있다. 에스키모들은 해표를 잡기 위해 주위에 순록 등의 가죽으로 된 깔개 등을 깔아 놓은 채 숨을 죽이며 길게는 한 시간 까지 바람을 안고 작살을 치켜들고 숨구멍을 노린다. 냄새를 잘맡는 해표가 혹시라도 사람 냄새가 나면 그 쪽 구멍으로는 아예 코를 내밀지 않기 때문이다.



金印基
(서울방송 사회부기자)

이 때문인지 에스키모들은 평소에도 즐겨 씻지를 않는 듯하다. 또 신발은 대개 해표 가죽으로 된 것을 신고 파카도 짐승 가죽으로 만든 것을 입고 사냥에 나선다.

이렇게 에스키모들은 살기 위해 자연에 동화돼야만 한다.

오랜 기다림 끝에 해표를 잡은 에스키모가 살코기 일부와 가죽 만을 그 자리에서 떼어내고 나머지는 얼음 위에 그대로 버려 두고 떠나는 것을 보고 저것을 왜 놔두고 가느냐고 묻자, 지극히 당연한 것을 왜 묻느냐는 표정으로 저것은 북극곰의 몫이라고 대답했다.

사냥감을 얻었을 때 우리가 죽과 개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굶주린 북극곰들의 몫으로 남겨 준다는 이야기였다.

이쯤되면 사람과 자연이 완전히 일체가 된 경지가 아닐까?

이 말을 듣고서는 북극해의 광대한 얼음 위에 군데군데 놓여 있는 피투성이의 얼음 구멍과 해표의 잔해들이 그리 잔인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지구상에서 가장 열악한 조건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에스키모들은 자연을 거역하고서는 도저히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옛날 부터 교훈으로 체득한 듯했다.

에스키모들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에 비하면 너무도 복받은 자연 환경 속에서 살아 온 우리는 너무 자연에 대해 오만한 태도를 취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성장과 개발이란 미명하에 끔직한 자연 파괴를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왔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분명 우리 국토 어딘가는 파헤쳐지고 오염되고 있을 것이다.

인간이 존재하면서 환경오염은 시작됐다고들 하지만 이 많은 인간의 문명이 급속히 발전

하면서 환경파괴, 환경오염이 가속화됐다고 하는 것이 옳은 표현일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경제학에서 따지는 제로·섬의 법칙을 환경문제에도 적용시킬 수 있을 듯 하다. 개발로 인해 생기는 이익과 그로 인한 환경오염과의 관계를 따져 보면 결국 플러스·마이너스 제로가 되고 마는 게 아닐까 한다.

우리의 경우 지난 30여년 간 숨가쁜 개발을 계속 해 왔지만 그 때문에 금수강산이라 불리던 우리의 국토 곳곳이 오늘날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수질 부문만 따져도 어느 산 어느 골짜기에 흐르는 물을 그대로 떠 먹을 수 있었던게 어제 일 같은데 오는 96년까지 4조원 가까운 돈을 투자해야 할 만큼 환경보전에 드는 비용은 막대하다. 그토록 엄청난 돈을 들인다고 원상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오염 상태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단계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결국 그동안 개발로 인해 얻은 것 만큼 다시 투자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런 경제적인 측면 외에도 정신적인 면 까지 고려하면 환경문제에서의 제로·섬은 어쩌면 오히려 마이너스의 결론까지 나올지도 모르겠다.

미국과 캐나다의 북극 지방에는 지난 60년대의 서구 문명이 도입되면서 심각한 변화가 몰아 닥치고 있다.

이제 에스키모 들은 더 이상 그들의 할아버지 시대와 같지



문명이 최악은 아니지만 많은 면에서 이젠 다시 한번 고려를 할 때가 되었다. 최선의 환경 보호는 최소의 문명화, 즉 최소의 개발이란 뜻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UNCED의 주제인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용어는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않다. 자신들의 고유어인 이누티트로만 말할 수 있는 늑은 에스키모들은 영어만 알아 들을 수 있는 손자들과 대화조차 할 수 없다. 소위 이글루라고 알려진 얼음집(원래 에스키모의 집은 짐승 가죽과 나무로 만들어진다. 이글루는 집이란 뜻이긴 하지만 그들이 사냥을 나갈 때

임시로 짓는 집이다.)을 지을 수 있는 사람도 점차 줄어 이제는 관광객을 위해 돈을 받고 이글루를 지을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이 문명이고 진보라하면 말이 없겠지만 이런 문명은 분명 비극이다.

북극에도 쓰레기가 쌓이고 있고, 때로는 북극해 부근에서 중대한 오염 사고 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나마 원체 광활한 지역이라 아직 자연이 이런 일부 오염을 포용하고 정화시킬 능력이 있다는 것이 우리와 다른 현실이다.

문명이 최악은 아니지만 많은 면에서 이젠 다시 한번 고려를 할 때가 되었다.

최선의 환경 보호는 최소의 문명화, 즉 최소의 개발이란 뜻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UNCED의 주제인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용어는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